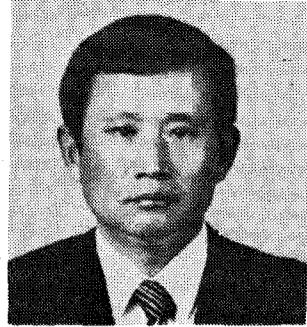


# 만성소화성궤양



박 실 무

&lt;중양의대 교수&gt;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위나 심이지장에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나 산과 펩신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경우나(심이지장 궤양의 원인이 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이미 위, 심이지장 절막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산과 펩신의 분비가 과다하지 않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생길 수 있다(위궤양의 원인이 됨).

## 2. 잘 생기는 장소는 어디인가?

궤양은 식도, 위, 심이지장 을 포함한 소장 등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지만 흔하게 발병하는 장소는 심이지장, 위 그리고 소장의 순이며 위에서도 몇몇 특수한 장소에만 발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 심이지장 궤양 발병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심이지장 궤양이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형편이다.

## 3. 어떠한 특징을 가진 질병인가?

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도 자연적으로 완치될 수 있는가?  
어떠한 질병이라도 자연 치유는 가능하지만 치유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궤양환자일 때에도 자연 치유는 가능하여 심이지장 궤양일 경우 발병 후 4주일이 되면 전체 환자 중 40% 정도, 위궤양일 때에는

30% 정도의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완치될 수 있으며 12주일 이상이 되면 그 비율은 현저하게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 재발되는 환자는 얼마나 되는가?

궤양환자 치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점이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완치된 뒤 계속 투약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유지요법”이라고 하는데 유지요법을 받지 않은 심이지장 궤양 환자는 완치 후 12개월 이내에 74%가 재발되며, 위궤양의 재발률도 35~80%에 이를 만큼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다. 또 다른 특징은 재발이 되어도 전혀 궤양증상이 없이지낼 수 있는 환자가 많아 치료시 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효과가 우수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는 좋은 치료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궤양의 일차치료에는

높아진다.

### 나. 의약품

우리가 흔히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에는 궤양을 생기게하거나 악화시키는 약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아스피린을 비롯한 수종의 해열진통제들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증명되어 복용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노인층의 인구분포가 증가되고 따라서 풀과 관절에 생기는 각종 퇴행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약제가 처방될 기회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약제와 궤양과의 상호관계에 늘 주의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 발병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점

모든 궤양은 남자에게 더 많이 발병할 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젊은 여성일 때가 더욱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궤양 환자의 예후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궤양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치료가 잘되지 않았던 환자, 또는 증상이 오래되어 장기간 앓고 있는 환자 등은 자연 치유율을 포함한 치유 가능성성이 훨씬 떨어지며 궤양 치료약제에 대한 반응도 낮고 재발과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

## 5. 궤양환자 치료의 원칙은 무엇인가?

### 가. 치료약제

전문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겠으나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궤양치료제는 그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과거에 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약제종류에 따른 치료효능의 차이는 서로 비슷하다는 점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어떠한 약이든 기본되는

## 궤양환자 재발율 높아 “보존요법”으로 최소화 해열진통제 복용시 要注意…흡연·커피 삼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방법을 쓰고 있으나 원칙적인 개념은 일차치료제, 가운데 한 가지 약제를 선택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존요법”을 하면 재발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 4. 궤양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가. 흡연

담배는 궤양과 밀접한 원인-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흡연 양이 많을수록 궤양발생률이 증가하며, 치유되는 속도도 늦어지며, 재발 및 합병증이 비흡연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궤양과 관계있는 사망율도

나이가 너무 어린 소아나 아버지 노인에게 발병된 궤양은 치료가 잘 안되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기호품과의 관계

카페인이 들어 있건 제거 시킨 것인 커피는 반드시 삼가하여야 하고,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수는 어떠한 것이라도 위산분비를 촉진시킴으로 궤양환자는 삼가하는 편이 바람직하며 술은 물론 상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지만 적당량을 마실 때에는 궤양이 치유되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술 중에 맥주 또는 포도주 등을 과량 마실 때에는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마. 기타

진단 당시 궤양이 크면 를 수록 치유속도는 늦어진다. 과거에 궤양을 앓았던 경

약리작용은 위속의 산과 펩신을 증화시키거나, 이들이 위속으로 분비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포에서 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 나. 일반사항

어떤 음식이 궤양치료에 유효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은 오랜 세월동안 있었으나 최근의 의학적인 전해에 의하면 궤양치료에 특별히 좋은 소위 특이식품은 없고 다만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궤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 된 몇 가지 기호품만 제외한다면 어떠한 음식이라도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딱딱한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궤양에 나쁘기 때문에 삼가할 것을 권유하거나 유동식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 성인병 음성정보 안내

◎본협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병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사업으로 음성정보를 개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인병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대책 등을 전문학자로 하여금 직접 녹취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많은 국민이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00국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녹취제공종목(병류)

- |          |             |                      |               |                   |
|----------|-------------|----------------------|---------------|-------------------|
| 1. 고혈압   | 10. 유암(유방암) | 19. 간경변증             | 26. 기관지천식     | 35. 소아폐질환         |
| 2. 당뇨병   | 11. 혈액암     | 20. 류마토이드 및 만성퇴화성관절염 | 27. 폐기종       | 36. 성인병운동요법       |
| 3. 동맥경화증 | 12. 대장암·직장암 | 21. 골조송증(골다공증)       | 28. 기관지확장증    | 37. 성인병 식사요법      |
| 4. 심장병   | 13. 혀장암     | 22. 비만증              | 29. 간질성폐질환    | 38. 노인성질환         |
| 5. 암 개요  | 14. 후두암     | 23. 소화성궤양            | 30. 간경기정신신경장애 | (순환기·치매·신경계·우울증)  |
| 6. 위암    | 15. 암치료법    | 24. 기능성 위장장애         | 31. 소아고혈압     | 39. 비뇨기계질환        |
| 7. 간암    | 16. 갑상선질환   | (과민성 대장증후군 포함)       | 32. 소아당뇨병     | (전립선염·전립선비대증·방광염) |
| 8. 자궁암   | 17. 뇌졸중     | 25. 기관지염             | 33. 소아정신장애    |                   |
| 9. 폐암    | 18. 만성신장병   |                      | 34. 소아비만증     |                   |

대표전화 700-6939